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강관실 세계철출판사 대표

“모든 학교의 등록금이 무료예요. 대학도 마찬가지로. 대학에 다니는 동안 정부에서 생활비를 대 주니까 아르바이트 부담도 없었고요. 독립해서 사는 대학생의 경우 매달 6000크로네(약 12만 원)씩 나오거든요.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이 금액의 절반 정도 나오고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는냐고? 있다. 바로 행복지수 1위의 나라 덴마크이다. 비용은 모두 기성세대가 내는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월급의 절반이 넘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대학생 복지 등 여러 복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어도 불만이 없는지 성인들에게 물어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대답한다고 한다. “나도 대학 다닐 때 그런 혜택을 누렸는데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학교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덴마크에서 길을 찾다”라는 부제가 달린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졸업 후 직장을 찾을 때까지 2년간은 정부에서 실업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충분히 고민해 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덴마크 학생들은 이처럼 대학 졸업 후에는 물론, 학교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갖는다. 덴마크의 초등학교는 우리나라의 중학교까지 포함한 9학년 제도인데, 고등학교는 10학년이 아니라 11학년부터 시작한다. 10학년은 에프티스쿨레(영어로 하면 에프티스쿨)인데 1년간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훈련 받을 수 있다.

진로 모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기속학교인 ‘성인용 자유허교’에서 또다시 자신의 미래에 대해 탐색할 기회를 갖는다. 4년제 대학 진학률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40% 정도이며, 40% 정도는 2년제 전문교육기관을 선택한다. 덴마크의 대학은 서열화가 없으며, 대학은 필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

생에서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덴마크의 교육 제도와 사회보장 제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평등 의식과 연대 의식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열쇠 수리 공이건 의사건 골목 청소부건 교수건 서로에 대한 차별 의식이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그래서 자신이 무슨 직업을 갖건 모두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중학교 1학년의 1학과 2학기 그리고 2학년의 1학기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시행한다. 한 학기 동안은 중간과 기말시험 없이 토론과 실습 등 참여 위주의 수업을 통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는 학습 제도가다.

오전에는 국어·영어·수학 등 기본 과목을 배우고 지필고사 없이 토론과 실습 등의 형성 평가를 한다. 오후에는 진로 체험이나 동아리 활동 등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한 탐색과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참 좋은 제도이자 꼭 필요한 교육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좋은 취지에

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당장 우려하는 것은 대학 입시이다. 성적이 떨어질까 봐 걱정인 것이다. 자유학기제 기간에 선행 학습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학원가가 호황을 누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과연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학부모들만 탓할 수 있을까.

출신 대학의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고 직업의 차별화는 여전하다. 성적 최우선의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게 하려고, 지식의 성적에 불붙 가리지 않는 학부모들의 심정은 지극히 당연한 게 아닐까. 자유학기제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어느 설명회에서 한 학부모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라며 울분에 찬 항변을 했다고 한다.

사회의 계급화, 대학의 서열화, 연대의식의 부재, 우리 사회를 뿌리부터 갈라먹고 있는 이런 거대한 현상을 전면적으로 바로잡지 않는 한, 그 누가 이 학부모의 항변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까. 학교 성적이 한 인간의 수많은 자질 중 하나에 불과하다. 성적 하나로 삶이 송두리째 재단당하는 경쟁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소중할 것을 얼마나 많이 잃어 가고 있는가.

社說

광주·무안 공항마저 신규 투자 중단이라니

철도 인프라에 이어 정부의 공항 개발 중장기 계획에서도 광주·전남이 소외되고 있다. 양 시·도가 장기간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 문제로 마찰을 겪는다는 이유로 정부가 이들 공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한 것이다. 게다가 전북 새만금 공항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제주 제2공항도 2025년 개항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에 예정돼 있어 자칫 광주·전남의 공항의 미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전남도가 발표한 정부의 제5차 공항 개발 중장기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서남권은 무안공항을 중심공항으로 활용하고,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과 가까운 거린 전북 새만금공항 개발을 위해 수요·입지·규모·사업 시기 등 타당성 검토를 명시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새만금공항 개발 추진과 연계해 전북의 김제·군산

공항의 장애 활용 계획을 구상함으로써 새만금공항을 가시화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광주공항과의 통합 문제에 발목이 잡힌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컨베이어 추가 설치 등도 정부의 투자 계획에 빠져 있다. 반면 인천공항, 김해·김포 공항 등에는 2020년까지 9조200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광주·무안 공항에 대한 정부의 투자 중단은 관광산업은 물론 지역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이다. 무안공항은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이용객이 4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서서히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있다. 그럼에도 무안공항을 활성화 시키지 못할망정 신규투자를 중단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철도·공항 등 이 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중단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공항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 내 상생의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

지카 바이러스, 광주·전남도 안심할 수 없다

중남미를 중심으로 소두증(少頭症)을 불러오는 ‘지카(Zika) 바이러스’ 감염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옮길 수 있는 ‘흰줄 숲모기’가 광주·전남에서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외국과의 교류도 잦아 먼 나라의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될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의 ‘2013~2015년 모기 채집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광주에서 발견된 흰줄 숲모기 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3년 44마리, 2014년 107마리에 이어 지난해 262마리로 늘어났다. 전남에서도 2013년 44마리에 이어 지난해 59마리가 채집됐다. 주로 ‘지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은 ‘이집트 숲모기’로 확인됐지만 흰줄 숲모기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보건 당국의 설명이다.

최근 전남을 비롯한 국내에서 30건에 가까운 바이러스 감염 검사 의뢰가 접수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마음을 놓기에는 아직 이르다. 가까운 중국에서는 한 남성이 외국 여행을 다녀

온 뒤 바이러스에 걸렸다. 또 지난해 5월 처음 감염이 보고된 브라질을 비롯해 남아프리카는 물론 우리와 왕래가 빈번한 태국 등 동남아와 미국·영국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모기의 움직임을 촉진해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을 부추겼을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의견도 나와 기온이 올라가면 더 확산될 개연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지카 바이러스를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고 대응 수위를 높였지만 지방자치단체도 평소와 다른 방역 태세가 필요하다.

바이러스의 매개체인 모기가 본격 활동하기 전에 서식처인 건물외곽의 지하 저장소나 집수정(集水井), 아파트 정화조 등을 집중적으로 방역해 원천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들도 철저한 위생관리와 함께 해외여행 후 고열이 나 발진·근육통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신고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조발근니 서산동성당 주임신부

응답하라 2016

첫 회가 기억나십니까? 덕선이 집에서 김치를 담가 정환이네 집에 보내면 빈 그릇에 음식을 채워 다시 보내고, 다시 선우 집에, 동룡이 집에, 택이 집에 음식이 오고 가는 정겨운 쌍문동 골목골목...

그보다 더 우리를 애잔하고 눈물 흘리게 한 것은 이웃의 아픔을 모른척하지 않는 쌍문동 골목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길동네 아저씨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도, 선우네가 집을 잃어버릴 뻔 했을 때도, 정봉이가 수술하는 날에도, 일화가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해질 때도, 택이가 탄 비행기가 사고가 났다는 오보에도 골목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인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했습니다. 매일 모여 심심풀이 고스톱을 치고, 같이 비빔국수를 해 먹으며 수다를 떨고, 택이 방에 모여 같이 라면을 먹거나 포장마차에서 한잔 할 때도 그들은 남의 고통을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 일처럼 걱정했습니다.

드라마의 큰 울림은 ‘옛날에는 그랬지’라는 추억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바라보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화는 사순시기에 들어갔습니다. 사순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듯 참회와 회개의 시간을 갖는 40일을 의미합니다.

“사순 시기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무엇보다 세례의 회상과 세례의 준비를 통해서, 또한 다른 편으로

는 보속을 통해서 신자들로 하여금 어느 때보다 더 큰 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념하면서 파스가 신비의 경축을 준비하게 한다. 따라서 전례에 있어서나 전례 교육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성격을 더욱 현저하게 드러내야 한다.”(2차 바티칸공의회 전례에 관한 헌장 109항)

다시 말하면 사순 시기는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함으로써 세례를 회상하고 기도과 실천으로 부활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사순은 남의 고통을 모른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라보고 참여하고 같이 공감하는 시기입니다.

최정명, 한규협 이 두 분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외치며 250일 가까이 서울 인권위원회 전광관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생존권인 ‘쌀값 보장, 농산물 제값받기’를 주장하던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아홉 명은 아직도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드플렉 해고자, 밀양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쌍용차 해고자 등등 주위에 아파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들은 응팔을 보면서 이웃 간에 정이 오가면 그 시절만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

파하는 이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고, 내 주변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모른 척 공감하지 않으면 언제든 그 일은 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리를 다친 덕선이, 신발끈을 묶지 못하는 택이, 함께 놀아줄 누군가가 필요한 진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슴 아파하는 정환이가 있습니다. 사순 시기가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는 시기라면 더불어 이웃의 고통에도 응답해야 합니다.

아기들은 생존을 위해 다양한 반사행동을 합니다. 그 중 하나인 모로반사는 신생아가 놀랐을 때 근육을 수축하고, 등을 벌려 마치 무엇을 포용할 것 같은 모양으로 손바닥과 손가락을 퍼면서 양팔을 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헬트 순간이 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양팔을 벌려 안아 토닥토닥 위로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힘들 때 기댈 어깨가 필요하고, 지칠 때 의지가 될 따뜻한 손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과거의 사람 냄새나던 시절을 추억하는 것보다 주변의 고통에 응답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응답이 몇십년 후 응답하라 2016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기고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우리가 꿈꾸는 문화도시

아문화도시가 아니라 세계문화도시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문화도시는 어떤 것일까? 전통과 현대의 문화가 어우러져 어디서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도시. 주택, 교통, 환경 등의 분야에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도시.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회적 약속이 묵시적으로 지켜지는 도시, 시민들이 그러한 도시환경을 통해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고, 관광객들조차 이 도시에서 살고 싶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닐까?

아프지만, 광주의 민낯을 살펴보면 문화도시라고 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길거리에 나가면 당장 눈에 띄는 것이 다른 도시보다 유독 불법주차와 불법현수막이 많은 것이다. 심지어는 버스전용차로나 대로변에도 버섯이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단언컨대, 도로를 막고 있는 불법주차 많은 도시는 절대로 문화도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나 도시 디자인 자체에 주차장 확보라는 문제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시민들도 여쩔 수 없이 아무데나 주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느 틈에 시민들의 질서외식조차 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한 도시를 문화도시라고 할 수는 없다.

창조도시로 유명한 일본 요코하마에 가

본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요코하마 시내에 불법주차가 없고, 불법현수막이 없다는 사실에 크게 놀란다. 관광객이 불법노점상은 더더욱 없다. 요코하마는 일본 2위의 인구수를 자랑하는 대도시인데도 그렇다. 청의도시 세미나를 위해 광주시립미술관에 온 요코하마 시청의 담당 과장에 직접 물어보았다. 요코하마엔 왜 불법주차, 불법현수막, 불법노점상이 없지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요코하마도 30여 년 전에 불법주차가 많았지만, 강력한 불법주차 단속, 소형 유료주차장 설치, 민폐를 싫어하는 사회적 특성 덕분에 불법주차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참고로 일본은 자전거 유료주차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자전거 불법주차 단속까지 한다.) 불법현수막과 불법노점상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요코하마의 경우 일본의 수도 도쿄의 위성도시시에 불과했지만, 도시를 매력적으로 만들고 나서 낫산, 후지 등 대기업들이 요코하마로 본사를 옮겼다고 한다. 회사가 있고 나서 도시가 매력을 가진 게 아니라, 도시의 매력을 만들자 회사들이 이주해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광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다행히도 광주시청은 2015년 11월 30일 요코하마시청에서 평생을 도시디자인 사업을 문화도시라고 할 수는 없다. 창조도시로 유명한 일본 요코하마에 가

니오유키씨를 도시디자인 자문관으로 위촉하여, 광주가 지속가능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사업에 자문을 받고 있다. 이것은 광주가 도시를 디자인하고, 멋진 도시로 가꿔나갈 것이라는 긴 여사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일 것이다.

광주가 진정한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제일 관건은 ‘광주가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문화의 힘’이라고 본다. 그것을 광주의 자생력이라 불렀다고 해도 광주 문화력이라고 불려도 될 것이다. 그 자생력은 어느 한 분야,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광주사회 전체가 어우러져 돌아가는 가운데 생겨나는 것일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도시를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민간부문의 문화외식 성장도 더불어 중요하다. 일평생을 요코하마의 도시디자인 사업에 매진해서 그것을 성공시킨 쿠니요시씨는 광주에 ‘도전정신’과 ‘시민과 함께’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전정신이 없고, 시민과 함께하지 않는 문화도시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할 수 있다는 도전정신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 힘을 발휘한다. 우리 스스로 문화적 도시를 만드는 것, 우리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와 살기 좋고 멋진 도시를 남겨주는 것,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은가?

無等鼓 advertisement with text about a father and s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redplane@.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ing contact and subscription information.